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알렉산더 꼼리와 존 칼빈의 연속성, 불연속성, 그리고 신학적 함의[1]

박재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초록]

본고는 나더러 레포르마치(Nadere Reformatie) 시대의 네덜란드 신학자 알렉산더 꼼리(Alexander Comire, 1706-1774)와 개혁신학의 탁월한 선생이었던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전개한 칭의론을 칭의의 6중 원인(작용인, 질료인, 형상인, 도구인, 공로인, 목적인)의 빛 아래서 고찰해 볼 것이다. 칭의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 6중 인과관계의 틀은 유용하다. 칭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실행,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 의의 전가, 신자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 등 다양한 칭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중 인과관계의 틀은 칭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 훌륭한 도구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아르미니우스주의, 반(反)율법주의, 신(新)율법주의, 하이퍼(hyper) 칼빈주의 등이 전개한 칭의론은 전통적

논문투고일 2017.08.01. / 심사완료일 2017.08.16. / 게재확정일 2017.09.15.

1 본고는 개혁주의학술원과 한국칼빈학회가 2017년 1월 16일에 공동주최한 제4회 신진학자포럼 & 한국칼빈학회 논문 발표회(서울시민교회) 때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칭의론의 틀과 사뭇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신학자들은 다양한 인과관계들을 선용(善用)하여 전통적 칭의론을 수호해나갔다. 본고는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꼼리와 칼빈의 시각 사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주목할 것이고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기반으로 어떠한 신학적 함의가 그 안에 숨어 있는지를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과연 칭의의 원인을 건전하게 바라보는 신학적 시각은 무엇인지가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존 칼빈, 알렉산더 꼼리, 칭의론, 6중 원인, 인과관계

Ⅰ. 들어가는 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22 BC)의 형이상학적 철학 체계는 신학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2]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은 16-17세기 개혁파 신학 체계에도 절충주의(eclecticism)의 빛 아래서 다방면으로 그 영향력의 손길을 미쳤는데[3] 이는 특히 원인론(原因論,

---

2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의를 참고하라. 박재은, "16-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형이상학 이해," 「교회와 문화」 37 (2016): 135-65.

3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 16-17세기 스콜라주의, 후기 종교개혁 개혁파 정통주의 철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구체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Joseph S. Freedman, "Aristotle and the Content of Philosophy Instruction at Central European Schools and Universities during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37/2 (1993): 213-53; Richard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The Rise and Development of Reformed Orthodoxy, ca. 1520 to ca. 1725* (Grand Rapids: Baker, 2003), 1:360-405; idem, "Scholasticism, Reformation, Orthodoxy, and the Persistence of Christian Aristotelianism," *Trinity Journal* 19:1 (Spring 1998): 81-96; idem, "Reformation, Orthodoxy, 'Christian Aristotelianism,' and the Eclecticism of Early Modern Philosophy,"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81.3 (2001): 306-25; Charles H. Lohr, "Metaphysic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Renaissance Philosophy*, eds. Charles B. Schmitt

the philosophy of causation)[4] 분야에서 진하게 드러난다. 원인을 소위 작용인(作用因, efficient cause), 형상인(形相因, formal cause), 질료인(質料因, material cause), 목적인(目的因, final cause)[5]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체계를 가리켜 "아리스토텔레스적 4중 인과관계"(Aristotelian fourfold causality)라고 통칭하며 이는 다양한 신학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형이상학 체계였다.[6]

"칭의론"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칭의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적 4중 인과관계의 틀은 유용했다.[7] 칭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 의의 전가, 신자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 등 다양한 칭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적 4중 인과관계의 틀은 칭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 훌륭한 도구적 장치였다.[8]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아르미

---

and Quentin Skinn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537-638.

4 원인에 대한 어원적 논의로는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61 (s.v. causa)을 참고하라 (이후부터 Muller의 사전을 *Dictionary*로 줄여 표기하도록 하겠다).

5 Aristotle, *Physics: Books I and II*, trans. William Charlton (Oxford, Clarendon Press, 2006), II. 3, $194^{b}16$-$195^{a}27$.

6 Cf. Muller, *Dictionary*, 61.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 17세기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플라톤(Plato, 428/427 혹은 424-423-348/347 BC) 철학도 17세기 유럽 신학의 한 꼭지를 차지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이 그 한 예이다. 특히 테오필루스 게일(Theophilus Gale, 1628-1679) 같은 경우엔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과는 또 다른 노선에서 신학을 전개했는데 소위 개혁적 플라톤 철학(Reformed Platonism)을 주장하면서 전통적 개혁 신학과 연속성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의인 Jae-Eun Park, "Theophilus Gale's Reformed Platonism: Focusing on His Discourse of 'Creation' and 'Providence' in *The Court of the Gentiles*,"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4 (2013): 121-42를 참고하라.

7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의를 참고하라.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역할, 그 사이에서 바라본 칭의』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0-23.

8 예를 들면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인 앤서니 버지스(Anthony Burgess, d.1664)는 그의 책 『참된 칭의 교리』 (*The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에서 칭의를 다음과 같이 사중인으로 설명한다. 칭의의 유효적 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형상적 혹은 공로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능동적/수동적 순종,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고, 목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Anthony Burgess, *The True Doctrine of Justification Asserted, and*

니우스주의, 반(反)율법주의, 신(新)율법주의, 하이퍼(hyper) 칼빈주의 등이 전개한 칭의론은 전통적 칭의론의 틀과 사뭇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9] 개혁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4중 인과관계를 선용(善用)하여 전통적 신학 사상을 수호해나갔다.[10] 특히 로마 가톨릭 칭의론과 아르미니우스주의 칭의론과 연관해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4중 인과관계의 틀과 더불어 두 개의 원인을 추가로 고찰했는데 그것들은 도구적 원인(instrumental cause)과 공로적 원인(meritorious cause)으로 통칭해 부르는 개념들이었다.[11]

사실 칭의의 유효적 원인(=작용인, causa efficiens)이나 목적 원인(causa finalis)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칭의의 유효적 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칭의의 목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신학 사상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핵심은 두 가지에 놓여있다. 첫째, 칭의의 도구적 원인(causa instrumentalis)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과연 그 도구적 원인이 칭의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을 감당하는가이다. 둘째, 칭의를 6중 원인 즉 유효적, 형상적, 질료적, 도구적,

---

Vindicated, from the Errours of Papists, Arminians, Socinians, and More Especially Antinomians (London, 1648), 2, 170, 182, 257.

9 아르미니우스주의,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하이퍼 칼빈주의 사상이 전개한 칭의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다음을 참고하라.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17-49.

10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5-8절과 에스겔서 1장 1-24절과 10장 8-16절을 주석하며 칼빈은 4중 원인론을 선용하고 있다. Cf. Calvini, *Epist. Pauli ad Ephesios*, I.5-8 (*CO*, 51:148-150); idem, *Praelectiones in Ezechielis prophetae*, I.1-24 & X.8-16 (*CO*, 40:21-54, 213-20).

11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글들을 살펴보라. Gideon Harvey, *Archeologia Philosophica Nova, or, New Principles of Philosophy. Containing Philosophy in General. Metaphysicks or Ontology. Dynamilogy, or a Discourse of Power. Religio Philosophi, or Natural Theology. Physicks, or Natural Philosophy* (London: J. H. for Samuel Thomson, 1663), 56-82(I/2.xv-xxiv); Daniel Sennert, *Thirteen Books of Natural Philosophy* (London: Peter Cole, 1660), 22-23(I.iv); Thomas Spencer, *The Art of Logick delivered in the precepts of Aristotle and Ramus* (London: John Dawson, 1628), 27-57, 156-59(ch. 5-10, 30.3); Franco Burgersdijk, *Monitio logica, or, An abstract and translation of Burgersdicius his logick* (London: for Ric. Cumberland, 1697), Cap. 15-18.

공로적, 목적 원인의 빛 아래서 볼 때 어느 원인을 칭의의 1차 원인(causa prima)으로 간주하여 다른 원인들보다 더 큰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 핵심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만약 칭의의 유효적 원인(=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에 극단적 무게 중심을 놓은 결과 도구적 원인(=믿음)이 자칫 간과되어진다면 결국 하이퍼 칼빈주의 칭의론 혹은 영원 칭의(eternal justification)[12] 형태로 발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혹은 만약 칭의의 질료적, 형상적 원인(=예수 그리스도)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될 경우엔 자연스럽게 반율법주의 칭의론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칭의의 도구적 원인과 공로적 원인이 신자의 행위와 결부되어 강조될 때 반(半)펠라기우스주의적 형태를 담지한 신율법주의적 칭의론이 싹 트게 된다.[13] 그러므로 칭의의 6중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12 영원 칭의(eternal justification)란 칭의가 하나님의 법정에서(in foro Dei)에서 이미 완료된 것을 뜻한다. 영원 칭의론은 이미 영원에서부터 칭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자의 믿음이 논리적으로 불필요하게 되고 이는 시간 속에서 신자의 의식에 칭의가 적용되는 순간을 앗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칭의론이다. 특히 영원 칭의와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는 구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능동적 칭의는 영원 칭의 와는 다르게 신자의 의식의 법정(in foro conscientiae)에서 믿음으로 적용되는 칭의 사건을 고려한다.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필자의 논의를 참고하라. Jae-Eun Park, *Driven By God: Active Justification and Definitive Sanctification in the Soteriology of Bavinck, Comrie, Witsius, and Kuyp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근간 예정.

13 반(半)펠라기우스적 칭의론은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의화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의를 참고하라. 박재은,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역할, 그 사이에서 바라본 성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20-45.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의 칭의론도 신율법주의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Richard Baxter, *Confesssion of His Faith, Especially Concerning the Interest of Repentance and Sincere Obedience to Christ, in Our Justification & Salvation* (London, 1655)을 참고하라. 백스터 칭의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J. V. Fesko, *Beyond Calvi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 (1517-170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300-17; J.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Crossway Books, 1990), 156-61; idem, *The Redemption & Restoration of Man in the Thought of Richard Baxter: A Study in Puritan Theology*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3); Hans Boersma, *A Hot Pepper Corn: Richard*

따라 칭의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역시 크게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나더러 레포르마치(Nadere Reformatie) 시대[14]의 네덜란드 신학자 알렉산더 꼼리(Alexander Comire, 1706-1774)와 개혁신학의 탁월한 선생이었던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전개한 칭의론을 칭의의 6중 원인의 빛 아래서 고찰해 볼 것이다. 특히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꼼리와 칼빈의 시각 사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주목할 것이고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기반으로 어떠한 신학적 함의가 그 안에 숨어 있는지를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과연 칭의의 원인을 건전하게 바라보는 신학적 시각은 무엇인지가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II. 알렉산더 꼼리의 칭의론에 나타난 칭의의 6중 원인

꼼리의 칭의론은 그의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편지』(Brief over de rechtvaerdigmakinge des zondaars, 1761)[15]에서 잘 드러나 있다. 꼼리의 칭의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꼼리가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편지』를 쓸 당시의 신학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제나 신학 사상은 시대의 맥락과 동떨어진 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16]

Baxter'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Its Seventeenth-Century Context of Controversy (Zoetermeer: Uitgeverij Boekencentrum, 1993), 166-94.

14 나더러 레포르마치 시대의 특징과 신학적 맥락에 대해서는 박재은, "위트레흐트 대학의 설립, 운영, 그리고 교육," 『종교개혁과 교육』,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11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7), 234-39를 참고하라.

15 Alexander Comrie, *Brief over de rechtvaerdigmakinge des zondaars: door de onmiddelyke toereekening der borggerechtigheit van Christus* (Amsterdam: Nicolaas Byl, 1761). 본고에서는 1832년에 재판된 *Brief over de rechtvaerdigmakinge des zondaars*, 2nd ed. (J. Bloemsma, 1832)를 사용하였다. 이후로는 *Brief over de rechtvaerdigmakinge des zondaars*의 표기를 *Brief*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다.

16 Cf. Richard A. Muller, *The Study of Theology: From Biblical Interpretation to Contemporary Formu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61-121.

꼼리가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편지』에서 주로 반대한 논적은 합리주의, 계몽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신(新)율법주의였다. 특히 꼼리는 동시대 인물이었던 안토니우스 반 데어 오스(Antonius van der Os, 1722-1807)를 소시니우스주의적 항론파(Sociniaansch gezinden Remonstrant)[17]로 명명하고 가열 찬 비판을 한다. 또한 꼼리는 도르트 회의(the Synod of Dort, 1618-1619)의 신학적 결정에 사상적 뿌리를 두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심각하게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규정하고 줄곧 비판하였다.[18] 그 뿐 아니라 꼼리는 신율법주의도 강하게 비판하는데 이는 꼼리가 영국의 독립교도였던 아이삭 초운시(Issac Chauncy, 1632-1712)의 글을 화란어로 번역 한 것만 봐도 꼼리가 얼마나 신율법주의에 대해 경계했는지가 잘 드러난다.[19] 초운시는 평생에 걸쳐 백스터주의식(Baxterian) 신율법주의의 주요 계승자였던 다니엘 윌리엄스(Daniel Williams, 1643-1716)를 주 논적으로 삼아 비판했기 때문에 초운시의 글에 대한 긍정은 곧 신율법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논리적 귀결에 이르기 때문이다. 꼼리가 비판했던 합리주의, 계몽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신율법주의의 신학적 공통점은 인간이 구원의 방정식에서 꽤 그럴듯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꼼리는 이 점을 못 견뎌했다. 칭의의 방정식에서 인간의 역할이 믿음의 역할이든 혹은 복음에 순종하는 새로운 법(neonomos)을 따르는

---

17 Comrie, *Brief*, 55.

18 꼼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니콜라스 홀티우스(Nicholas Holtius, 1693-1773)와 함께 쓴 *Examen van het ontwerp van tolerantie* (1753-1757)에서도 강하게 드러낸다. 다음을 참고하라. Alexander Comrie & Nicolaus Holtius, *Examen van het ontwerp van tolerantie: om de leere in de Dordrechtse synode anno 1619, vastgesteld met de veroordeelde leere der remonstranten te verenigen, voorgesteld in eenige samenspraken*, 2 vols. (Amsterdam: Nicolaas Byl, 1753).

19 꼼리는 초운시의 *The Doctrine which is according to Godliness Grounded upon the Holy Scriptures of Truth, and Agreeable to the Doctrinal Part of the English Protestant Articles and Confessions* (London, 1694)를 *De Leere der Waarheit, die na de Godtzaligheit is, gegrondt op de Heilige Schriftuur, volgens den leidraadt van den kleinen Catechismus der Westmunstersche Godtgeleerden* (Leyden, 1757)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역할이든 그러한 인간의 역할들 강조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론적 주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했던 것이다. 실제로 꼼리가 살던 시대의 신학적 지형도는 이러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던 시대였다. 항론파의 가르침이 여기저기서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0]

1. 칭의의 6중 원인

꼼리는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편지』에서 칭의 사건을 다양한 원인 하에서 살펴본다. 명시적으로 네 가지 원인들(vier oorzaken) 가운데서 칭의 사건을 바라보지만 사용하는 용어나 카테고리는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4중 원인론과 약간 차이가 있다.[21] 유효적 원인을 "내적 추진 원인"(inwendige aandrijvende oorzaak)으로 표현하고, 질료적 원인과 공로적 원인을 함께 묶어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단적 원인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편지』 전반에 걸쳐 다양한 추가 원인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칭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흩뿌려진 원인들을 모아서 6중 원인의 구조 안으로 한데 주조(鑄造)시켜[22] 설명하도록 하겠다.[23] 고찰하는 순서는 칭의의 유효적, 질료적, 형상

---

20 도르트 회의와 항론파의 신학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훌륭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Theodoor Marius van Leeuwen, Keith D. Stanglin, & Marijke Tolsma, eds., *Arminius, Arminianism, and Europe: Jacobus Arminius (1559/60-1609)* (Leiden: Brill, 2009); Aza Goudriaan & Fred van Lieburg, eds., *Revisiting the Synod of Dordt (1618-1619)* (Leiden: Brill, 2011); Herbert Darling Foster, "Liberal Calvinism: the Remonstrants at the Synod of Dort in 1618," *Harvard Theological Review*, 16 no. 1 (January 1923): 1-37.

21 Comrie, *Brief*, 26ff.

22 꼼리가 6중 원인론을 명시적으로 주장하며 칭의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중 원인론의 틀로 꼼리의 사상을 꿰맞추는 것은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히 옳은 방법론은 아니다(이 점을 지적해주신 논문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꼼리의 사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꼼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꼼리는 지속적으로 "원인"에 대한 언급을 하며 원인론의 큰 틀 가운데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6중 원인론의 틀 가운데서 꼼리의 사상을 비추어보는 것도 일견 의미가 있을 수 있다.

23 꼼리의 칭의론을 4중 원인론에 비추어 짧게 설명한 자료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A. G.

적, 도구적, 공로적, 목적 원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꼼리가 생각하는 칭의의 유효적 원인 즉 내적 추진 원인은 무엇인가? 꼼리에게 있어서 칭의의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직접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개념인 "능동적 칭의"이다. 꼼리에게 있어서 능동적 칭의란 "신적 판결 그 자체에 대한 확립이며, 새로운 언약 일뿐 아니라 약속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 측면에서의 공표"[24]이다. 꼼리에게 있어 능동적 칭의 개념은 곧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능동적 자기 결정인데 이 결정은 하나님의 직접적(dadelijk)[25] 결정이다. 여기서 "직접적" 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실 때 자신 스스로 외에 그 어떤 자원(resource)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칭의의 자원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접적"(mediate)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꼼리는 칭의의 유효적 원인을 구성함에 있어 인간의 어떤 행위도 유효적 원인을 구성하는 과정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인간의 행위는 칭의의 유효적 원인인 하나님의 능동적 칭의를 고양(opwekken) 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26] 꼼리에게 있어서 칭의의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며 자신의 신적 판결에 대한 확립이다. 이것이 곧 능동적 칭의 개념이다.[27]

Honig, *Alexander Comrie* (Utrecht: 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 1892), 232; K. Exalto, "Genadeleer en Heilsweg," in *Theologische aspecten van de Nadere Reformatie*, eds. T. Brienen, K. Exalto, and C. Graafland (Zoetermeer: Boekencentrum, 1993), 196; Joel R. Beeke, *The Quest for Full Assurance: The Legacy of Calvin and His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9), 240-41.

24 Comrie, *Brief*, 83: "… zy [능동적 칭의] beteekent de vaststelling zelve van het Goddelijk vonnis, en alzoo van het nieuwe Verbond, de belofte, en de uitspraak daar van, van de zyde Gods."

25 Comrie, *Brief*, iv: "… *Godt, die den godtloozen rechtvaerdigt,* dadelijk *is* …" (강조는 원문).

26 Comrie, *Brief*, iv-v: "… *de godtlooze niets doet, of werkt, waar door hij Godt tot zijne rechtvaerdigmakinge zoude opwekken of werkzaam maken: het welk daar uit nog klaarder is, dat alle werk des zondaars wordt uitgesloten buiten de oorzaken der rechtvaerdigmakinge*" (강조는 원문).

27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로는 필자의 논의를 참고하라. 박재은,

둘째, 그렇다면 꼼리에게 있어서 칭의의 질료적 원인은 무엇인가? 꼼리는 칭의 사건을 네 가지 인과 구조 가운데서 살핀다. (1) 하나님의 은혜, (2)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 (3) 즉각적 전가, 그리고 (4) 믿음이 바로 그것들이다.[28] 칭의의 질료적 원인과 관계해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영역이다. 꼼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은 칭의의 질료적 원인(stoffelijke oorzaak) 혹은 공로적 원인(verdienende oorzaak)이 된다.[29] 율법을 낱낱이 지키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뿐 만 아니라 ("능동적 순종" 혹은 "행하신 순종") 고난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수동적 순종" 혹은 "당하신 순종")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적 모습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꼼리에게 있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het Verbondt met Christus)[30]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질료가 되어서 죄인이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제 꼼리가 생각하는 칭의의 형상적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시간이다.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인과 구조 가운데서 세 번째 영역인 "즉각적 전가"(de onmiddelijke toerekeninge)가 바로 꼼리가 생각하는 칭의의 형상적 원인이다.[31]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편지』전반에 걸쳐 꼼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즉각적이고(onmiddelijke) 직접적(directe)일 뿐 아니라 우선적(voorafgaande)이라고 강조한다.[32] 여기에서 즉각적이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105-45. 박재은, "균형 잡힌 칭의 교리 교육을 위한 제언: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 (2016년 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발제문)도 참고하라.

28 Comrie, *Brief*, 26.

29 Comrie, *Brief*, 26: "De tweede is de *stoffelijke* of *verdienende oorzaak*, namentilijk alleen Christus dadelijke en lijdelijke gehoorzaamheit met de verdiensten van dien" (강조는 원문).

30 Comrie, *Brief*, 17.

31 Comrie, *Brief*, 26: "De derde is de *formeele oorzaak*, de onmiddelijke, directe en voorafgaande toerekeninge van die gehoorzaamheit aan ons …" (강조는 원문).

32 Comrie, *Brief*, 26.

고 직접적인 전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표현에 내포된 의미는 만약 그리스도의 의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전가를 위해 첨가된다면 그것은 즉각적, 직접적 전가가 아니라 연기된, 간접적 전가가 되는 것이다.[33] 그러므로 꼼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개체도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 매개체 중에는 신자의 믿음 또한 포함된다.[34] 꼼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칭의의 형상적 원인인 이유를 레이든 대학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루카스 트렐카티우스(Lucas Trelcatius, 1542-1602)의 글[35]을 인용하며 논증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리스도에게 있어 실제적 의(actualis justitiae Christi)가 되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 형상적 원인은 사물의 본질이나 정수에 엉킨 결정적 원인의 본질과 관계된다.[36] 칭의의 본질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므로[37] 그리스도의 실제적 의를 수여 받는 "의의 전가" 개념이야말로 칭의의 형상적 원인 중 핵심으로

---

33 구원론에서 말하는 직접 전가를 immediate imputation으로 영어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간론 영역인 죄의 전가(imputatio peccati) 논의 맥락에서 말하는 직접 전가(imputatio immediata)와는 구별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구원론에서 말하는 직접/간접 전가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에 있어 신자의 믿음이 필요한가(간접 전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직접 전가)에 대한 논의이고 인간론에서 말하는 직접/간접 전가는 어떻게 죄가 인류에 퍼졌는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즉 죄가 모든 인간의 자연적 부패나 유전적 왜곡에 의해 시작되고 퍼졌다면 그것은 간접 전가이고 만약 아담의 타락이 원죄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해 인류의 죄가 시작되어 퍼졌다면 그것은 직접 전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Muller, *Dictionary*, 149 (s.v. *imputatio*)를 참고하라.

34 이러한 꼼리의 주장은 여러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35 Lucas Trelcatius, *Scholastica, et methodica, locorum communium s. theologiae institutio didacticè & elencticè in epitome explicata* (London, 1604), 90: "FORMA justificationis, *Active* sumptae, est Actualis Justitiae Christi, gratuita imputatio; qua meritum & Obedientia Christi nobis applicantur, vi communionis arctissimae, qua ille in nobis, & nos in illo"(대문자 표시는 원문). Cf. Comrie, *Brief*, 144.

36 박재은, "16-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형이상학 이해," 155. Cf. Aristotle, *Physics*, II.3, $194^{b}23$-$194^{b}29$.

37 칭의의 본질은 의롭다 여김을 혹은 칭함을 받는 것이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개념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의화(義化)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다. 박재은,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 20-45를 참고하라.

작용하는 것이다.[38] 꼼리에게 있어서 질료적 원인과 형상적 원인은 기독론적 중요성을 담지 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치환되었고(질료적 원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전가되어(형상적 원인) 죄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이다.

넷째, 그렇다면 꼼리에게 있어 칭의의 도구적 원인은 무엇인가? 꼼리에게 있어서 칭의의 도구적 원인(de instrumenteele oorzaak)은 믿음이다.[39] 도구적 원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구원의 유익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꼼리는 언급한다.[40] 꼼리는 믿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수단(middel)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믿음은 연합하는 수단(verenigde middel),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는 수단(houdend middel in de vereniging met Christus), 받는 수단(ontvangend middel), 수용하는 수단(aannemend middel), 의지하고 위로를 얻는 수단(leunende en berustende middel)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41] 꼼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명하는 그의 책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믿음의 성향(habitus)과 (2) 믿음의 행위(actus)가 바로 그것이다.[42]

---

38 Comrie, *Brief*, 26.

39 Comrie, *Brief*, 26.

40 Comrie, *Brief*, 26: "... het geloove als de *instrumenteele oorzaak*, waar door alleen wij deze weldaad ontvangen, ons toeeigenen, en daar op tot zaligheit berusten" (강조는 원문).

41 Comrie, *Brief*, 151-52.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1장 1절에도 믿음의 도구/수단적 역할에 대해 잘 표현되어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으심으로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이며,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그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인데,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Philip Schaff, e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3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9), 3:626 (강조는 첨가)을 참고하라.

42 Alexander Comrie, *Stellige en praktikale verklaaringe van den Heidelbergschen Catechismus, volgens de leere en gronden der Reformatie* (Amsterdam: Nicolaas

꼼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향이란 믿는 것을 가능케 만드는 원리이고, 믿음의 행위란 한 실제적 인물이 실제적으로 믿는 행위 그 자체이다.[43] 꼼리는 믿는 행위(gelooven)는 반드시 믿음(geloof)의 성향 및 원리로부터 발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44] 믿음을 성향(habitus)과 행위(actus)로 구분하는 것이 꼼리에게 있어 중요한 이유는 칭의의 방정식에서 비록 믿음은 도구적 원인으로 참여하긴 하지만 그 도구적 원인인 믿음 역시 칭의의 1차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구분법 하에서 설명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즉 도구적 원인인 믿음이 칭의의 1차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믿음이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는 믿음의 성향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45] 만약 믿음의 행위(actus)가 칭의의 방정식에서 1차 원인이 된다면 그 결과는 인간중심주의적 칭의론으로 변질 될 수밖에 없다고 꼼리는 우려했던 것이다.[46]

다섯째, 그렇다면 꼼리에게 있어 칭의의 공로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 꼼리에게 있어서 칭의의 질료적 혹은 공로적 원인이 되었다.[47] 꼼리는 칭의의 방정식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제거하길 원했다. 이는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꼼리가 활동했던 당시 신학적 지형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아르미니우스주의, 신율법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판치는 시대 가운데서 꼼리는 인간의 공로라는 벽돌로 칭의의 탑을 세워나가는 것을

Byl, 1753), 430. 믿음을 성향과 행위로 나누어 생각하는 구분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Beeke, *The Quest for Full Assurance*, 218-31; Maarten Wisse, "*Habitus Fidei*: An Essay on the History of a Concept,"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6, no. 2 (2003): 172-89.

43 Comrie, *Heidelbergschen Catechismus*, xxviii, 429-32.

44 Comrie, *Heidelbergschen Catechismus*, 429.

45 믿음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이해했던 꼼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비판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다음 장에서 내릴 것이다.

46 Comrie, *Brief*, 133: "… men dit ontkent, men noodzakelijk in den mensche, zonder de ingestorte Geloofshebbelijkheit, welke in de kragtige roeping in hem ingewrogt wordt, een natuurlijk vermogen moet stellen, het zij in de conscientie, het zij ip het verstant, waar door men, zonder een nieuw levensbeginsel, uit de natuur tot de genade zoude konnen opklimmen."

47 Comrie, *Brief*, 26.

극도로 경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꼼리가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편지』 전반에 걸쳐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우리의 도움 없이"(zonder ons toe-doen)와 "우리에 의해 미리 행해지는 어떤 것이 없이"(zonder enige voorafgaande daad van ons) 등이다.[48] 우리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꼼리는 강조에 강조를 거듭한다.[49] 그러므로 꼼리는 칭의의 공로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깊게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꼼리에게 있어 칭의의 목적 원인은 무엇인가?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편지』전반에 걸쳐서 꼼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 뿐이며 또한 "주권적이고,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 뿐이라고 꼼리는 언급한다.[50] 꼼리에게 있어서 죄인을 의롭다 여기는 칭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의지와 기쁨에 근거하기 때문에 칭의 사건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이 칭의의 근원적인 목적 원인이다.

2. 분석 및 평가

꼼리의 칭의론 전반에 걸쳐 발현되고 있는 원인론의 핵심은 바로 칭의의 방정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론적 주권을 굳건히 확보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칭의의 6중 원인 즉 유효적, 질료적, 형상적, 도구적, 공로적, 목적 원인을 전부 다 신적 권위에 확고히 두려고 한 점이 꼼리의 칭의론

---

48 Comrie, *Brief*, 104.

49 Comrie, *Brief*, 101: "… gelijk wij in deze toegerekende Geregtigheit en Genoegdoeninge alleen rechtvaerdig voor Godt zijn, wij zoo ook alleen die, als de onse van Godt door toerekeninge zonder ons toedoen geworden zijnde, aannemen, ende daar op ter zaligheit berusten."

50 Comrie, *Brief*, 85: "… de eenige bepalinge van zijn wils-daad alleen gegrondt in zijn vrijmagtig, Souverein, volstrekt oppermagtig welbehagen."

전반에 걸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꼼리의 노력은 신학적으로 명암이 존재한다.

첫째, 꼼리가 생각하는 칭의의 원인론은 인간중심주의적 칭의론이 판치던 시대 속에서 분명 신학적으로 깊은 의의가 있다. 칭의의 장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는 통로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 노력한 점은 백번 칭찬 받아 마땅하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일찍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처럼 칭의가 가능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의 의"(iustitia hominis)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iustitia Dei)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고전 1:30) 곧 "그리스도의 의"(iustitia Christi)가 죄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51] 그러므로 꼼리에게 있어서 칭의의 내적 추진 원인(=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고, 형상적, 질료적 원인 또한 그리스도의 의에 집중되어야 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공로 역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능동적 칭의 개념) 죄인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다(수동적 칭의 개념).[52] 칭의 사건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이다.

둘째, 하지만 꼼리의 하나님 중심적 칭의론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것은 도구적 원인인 "믿음"에 대한 꼼리의 태도 때문이다. 두 논점이 존재한다. (1) 꼼리는 칭의의 형상적 원인을 "즉각적/직접적 의의 전가"로 보았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즉각적/직접적"이란 표현 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의의 전가를 위해 어떠한 매개체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믿음이란 매개체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성향(habitus)보다는 믿음의 행위(actus)에 더 가까

51 Martin Luther,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Hermann Böhlaus Nachfolger, 1898), 20:669.36.

52 하나님께서 칭의를 능동적으로 결정, 실행하시고 죄인은 그 하나님의 능동적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개념을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 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루이스 벌코프의 설명은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6), 517을 참고하라.

운 개념이다. 즉 꼼리가 주장하는 바는 *인간이 믿는 행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 두 번째 논점은 믿음이 칭의의 도구적 원인이라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actus)로서의 의미인가 아니면 믿음의 성향(habitus)으로서의 의미인가의 문제이다.

판 덴 브링크(G. A. van den Brink)나 흐라프랑트(C. Graafland)는 꼼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판 덴 브링크 같은 경우엔 꼼리를 "교리적 반율법주의자"로 보는데 그 주된 이유는 만약 꼼리가 주장하듯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믿음의 행위 없이 즉각적/직접적으로 일어난다면 결국 인간의 믿음 행위를 제거해버린 것이므로 교리적으로 17세기 중엽 대유행했던 반율법주의자들의 사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53] 특별히 판 덴 브링크는 믿음에 대한 꼼리의 이해와 뉴 잉글랜드 메샤츄세츠에서 벌어진 반율법주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존 코튼(John Cotton, 1585-1652)의 이해가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짓고 꼼리를 교리적 반율법주의자(doctrinal antinomianist)로 또 다시 확고히 규정한다.[54] 판 덴 브링크는 꼼리의 사상에 변화가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비록 꼼리는 초기작 『구원하는 믿음의 속성들에 대한 연구』(*Verhandeling van eenige eigenschappen des zaligmakenden geloofs*, 1744)에서는 개혁신학 전통에 서있었지만 『죄인들의 칭의에 대한 편지』(1761)와 같은 후기작에서는 교리적 반율법주의와 유사한 주장을 함으로 신학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55] 흐라프랑트도 칭의의 도구적 원인인 믿음을 대하는 꼼리의 태도

---

53 G. A. van den Brink, "Comrie en het Antinomianisme," *Documentatieblad Nadere Reformatie* 30, no. 2 (2006): 133-39; idem, "'Elke daad is een werk', Alexander Comrie (1706-1774) over de verschillen tussen de remonstrantse en de gereformeerde rechtvaardigingsleer," *Theologia Reformata* 55, no. 2 (2012): 146-64 (특히 158).

54 G. A. van den Brink, "The Act or Habit of Faith? Alexander Comrie's Interpretation of Heidelberg Catechism Question 20," in *Reformed Orthodoxy in Scotland: Essays on Scottish Theology 1560-1775*, ed. Aaron C. Denlinger (London: T & T Clark, 2015), 253-70.

55 G. A. van den Brink, "Tegenwicht of tegenstelling? Het belang van de eigenschappen voor de Comrie-Interpretatie," *Documentatieblad Nadere Reformatie* 36, no.

에 대해 비판하면서 만약 꼼리 같이 생각할 경우엔 칭의의 방정식 내에서 믿음의 행위(actus)는 사실 상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56]

판 덴 브링크나 흐라프랑트의 우려나 비판은 물론 일리가 있는 비판이다. 꼼리는 믿음을 도구적 원인으로 정확히 명시해 설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은 행위(actus)라기보다는 성향(habitus)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리의 믿음 이해에 주목하여 꼼리의 칭의론을 교리적 반율법주의로 규정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꼼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수단(middel)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칭의의 도구적 원인으로서의 믿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꼼리는 주장한다. "만약 선택 받은 자의 믿음이 덧붙여지지 않는다면 [칭의의] 유익은 그것 자체로 완전함을 가지지 않는다."[57] 꼼리가 부단히 경계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가 혹시라도 칭의의 유효적, 형상적, 공로적 원인이 되는 상황이었다. 꼼리 당시에 실제로 이런 상황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했다. 그러므로 꼼리는 믿음의 행위가 칭의의 1차 원인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꼼리에게 있어서 칭의의 1차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야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칭의의 1차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58] 그러나 의도야 어떻든 꼼리의 칭의론 안에는 믿음의

---

2 (2012): 180-86.

56 C. Graafland, "Alexander Comrie (1706-1774)," in *De Nadere Reformatie: beschrijving van haar voornaamste vertegenwoordigers*, ed. T. Brienen et al. ('s-Gravenhage: Boekencentrum, 1986), 338.

57 Comrie, *Brief*, iv: "… *deze Weldaad hare* volkomenheit *niet heeft, zoo daar niet bijkome het* Geloove *der uitverkorenen*" (강조는 원문).

58 Comrie, *Brief*, 123-24: "… zoo men het geloove als eeue voorafgaande hebbelijkheit, daadt, ofte werkzaamheit stelt, eer Godt ons door een overgaande daadt dadelijk en persooneel regtvaerdigt door toerekeninge van de geregtigheit en genoegdoeninge Christi, zoo verandert men de geheele natuur der oirzaken: makende de *tweede* de *eerst*, en de *eerste* de *tweede* … wijl, zoo Godt ons eerst regtvaerdigt op het Geloove, ofte uit ofte door het Geloove, als een voorgaande, hij niet langer *de eerste* … hij altoos de eerste is, en van niets buiten zig in zijne werkinge afhangt …" (강조는 원문).

도구적 "행위"보다는 믿음의 도구적 "성향"이 보다 더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59]

Ⅲ. 존 칼빈의 칭의론에 나타난 칭의의 6중 원인

지금까지 꼼리의 칭의론을 칭의의 6중 원인 하에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칭의의 6중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칼빈은 아리스토텔레스적 4중 인과 관계 속에서 칭의의 원인을 그의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60] 3.14.17과 3.14.21에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칭의(구원)의 질료적 원인과 도구적 원인 등을 각각 『기독교 강요』 2.17.2와 3.11.7에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주석에서도 원인(causa)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며 칭의, 구원, 예정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주석』과 『에베소서 주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주지할 사실 중 하나는 칼빈 같은 경우 칭의의 원인을 형이상학적 원인론의 틀 안에서 고찰하긴 하지만 그 형이상학적 논리의 근거를 성경 구절로 채워나간다는 점이다. 이처럼 칼빈은 다양한 곳에서 칭의의 원인을 성경 구절에 근거해 설파했는데 이를 본고의 주제에 맞춰 칭의의 6중 원인 하에 한데 묶어 고찰하도록 하겠다.[61]

---

59 이와 관련하여 꼼리의 칭의론이 영원 칭의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 주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Park, *Driven by God*, 근간 예정을 참고하라.

60 Ioannis Calvin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libros quatuor nunc primum digesta, certisque distincta capitibus, ad aptissimam methodum: aucta etiam tam magna accessione ut propemodum opus novum haberi possit," 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rdus Reuss, 59 vols. (Brunswick: Schwetschke, 1863-1900), 2:1-1118. 이후로는 *Inst*와 *CO*로 줄여 표기하도록 하겠다.

61 꼼리와 마찬가지로 칼빈 또한 6중 원인론을 명시적으로 설정해 논거를 펴 나가지 않았다. 본고의 관심은 6중 원인론의 틀 안에서 구원(칭의)에 관한 칼빈의 원인론을 재조명해 보는 것이다.

1. 칭의의 6중 원인

6중 원인의 고찰 순서는 꼼리를 다뤘던 이전 장에서 했던 것처럼 칭의의 유효적, 질료적, 형상적, 도구적, 공로적, 목적 원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의 유효적 원인(causa efficiens)은 무엇인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의 유효적 원인(작용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해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천명한다.[62] 칼빈에게 있어 칭의의 유효적 원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이유는 단순히 철학자의 논리적 귀결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나 선포 하고 있기 때문이다(ubique Scriptura praedicat).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칭의의 유효적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63]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칭의의 "머리이며 첫째 근원"(caput et primum fontem)[64]이라고 강조를 거듭한다. 칼빈은 예정의 맥락에서도 유효적 원인을 묘사하는데 이는 『에베소서 주석』에 잘 드러나 있다. 칼빈은 에베소서 1장 5절의 "…우리를 예정하사…"의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고 기록한다.[65]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사랑이 칭의의 유효적 원인이 되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를 거부하는 자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칼빈은 경고한다.[66]

---

62 Calvin, *Inst.*, 3.14.17 (*CO*, 2:575): "Efficientem enim vitae aeternae nobis comparandae causam ubique Scriptura praedicat Patris caelestis misericordiam, et gratuitam erga nos dilectionem." 『기독교 강요』 3.14.21에서도 칼빈은 구원의 유효적 원인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돌리고 있다. Calvin, *Inst.*, 3.14.21 (*CO*, 2:578)을 참고하라.

63 Calvin, *Epist. Pauli ad Romanos*, III.24 (*CO*, 49:61): "Quantum ad causam efficientem, dicit gratis nos iustificari, et quidem ipsius gratis."

64 Calvin, *Inst.*, 3.14.17 (*CO*, 2:575).

65 Calvin, *Epist. Pauli ad Ephesios*, I.5 (*CO*, 51:148): "Causa efficiens est beneplacitum voluntatis Dei."

66 Calvin, *Inst.*, 3.14.17 (*CO*, 2:576): "Nec de efficiente, nec de finali controversiam

둘째,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의 질료적 원인(causa materialis)은 무엇인가? 칼빈은 칭의의 질료적 원인을 "그리스도"에게 확고히 둔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에 의해 의를 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구원의 질료[salutis nostrae materia]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67] 그리스도가 왜 칭의의 질료적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확실히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함께 [칭의의] 질료적 [원인]이다.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의를 획득하셨다."[68] 즉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전가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획득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만이 칭의의 유일한 질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순종은 칭의(구원)의 질료적 원인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체이다.[69] 그리스도를 칭의/구원/예정의 질료적 원인으로 보는 칼빈의 관점은 일관성 있게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칼빈은 확고히 말한다. "[우리의 구원의] 질료적 원인은 그리스도이다."[70]

셋째,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의 형상적 원인(causa formalis)은

---

nobis movere possunt vel coniuratissimi divinae gratiae hostes, nisi totam Scripturam abnegare velint."

67 Calvin, *Inst.*, 2.17.2 (*CO*, 2:387): "… si fide quae in ipsum [그리스도] recumbit iustitiam consequimur, salutis nostrae materia in eo quaerenda …" Henry Beveridge의 영역본 같은 경우엔 "우리의 구원의 질료"(salutis nostrae materia)를 "우리의 구원의 기반"(the groundwork of our salvation)으로 번역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8), 340을 참고하라. Ford Lewis Battles의 영역본 같은 경우엔 "우리의 구원의 질료"(the matter of our salvation)로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ed. John T. McNeill (Louisville: The Westminster Press, 1960), 1:529를 참고하라. 이 구절 바로 위에 형상적 원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질료"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럽다.

68 Calvin, *Inst.*, 3.14.17 (*CO*, 2:575): "… materialem vero, Christum cum sua obedientia, per quam nobis iustitiam acquisivit …"

69 Calvin, *Inst.*, 3.14.21 (*CO*, 2:578): "… effectum nostrae salutis in Dei Patris dilectione situm esse: materiam in Filii obedientia …"

70 Calvin, *Epist. Pauli ad Ephesios*, I.5 (*CO*, 51:148): "… causa materialis est Christus."

무엇인가? 이는 칼빈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구원과 예정의 맥락 가운데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칼빈에게 있어 구원의 형상적 원인은 "복음의 선포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이다.[71]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형상적 원인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72] 칼빈은 왜 칭의의 형상적 원인을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는 "복음의 선포"라고 했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믿음"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주해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언급한다. "형상적 혹은 도구적 원인은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믿음이다."[73] 즉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칭의의 형상적 원인으로서 "믿음"과 "선포된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 사건의 형상적 원인은 믿음인 동시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선포된 말씀인 것이다.

넷째, 이제 칼빈이 생각하는 칭의의 도구적 원인(causa instrumentalis)을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의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 나타난 한 표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διά πίστεως)을 인용하며 칭의의 도구적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즉 도구적 원인인 "믿음을 통해"(per fidem)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74] 칼빈은 『기독교 강요』 3.11.7에서 믿음의 성질을 좀 더 구체화하여 설명한다. 칼빈은 믿음을 "그릇"에 비유한다.[75]

---

71 Calvin, *Epist. Pauli ad Ephesios*, I.8 (*CO*, 51:150): "Iam ad causam formalem descendit, nempe ad evangelii praedicationem, per quam in nos exundat Dei bonitas."

72 Calvin, *Inst.*, 3.14.17 (*CO*, 2:575): "… formalem quoque vel instrumentalem quam esse dicemus nisi fidem?"

73 Calvin, *Epist. Pauli ad Romanos*, III.24 (*CO*, 49:61): "… formalem, seu instrumentalem, esse fidem e verbo conceptam …"

74 Calvin, *Inst.*, 3.14.17 (*CO*, 2:576): "Per fidem in sanuine ipsius: hic causa instrumentalis ostenditur, qua Christi iustitia nobis applicatur."

75 Calvin, *Inst.*, 3.11.7 (*CO*, 2:538).

우리 안의 그릇을 비우고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76]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단지 의를 받는 수단"(…fidem, quae instrumentum est duntaxat percipiendae iustitiae)[77]이라고 칼빈은 거듭 강조한다. 칼빈은 더 나아가 성령론적 관점에서 칭의의 도구적 원인인 믿음을 고찰하기도 한다. 즉 믿음을 "성령의 조명" 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78] 이를 통해 볼 때 칼빈은 믿음의 근원을 인간 기원에 둔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 칭의의 공로적 원인(causa meritoria)은 무엇인가? 사실 칼빈은 칭의의 공로적 원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와 연관하여 칭의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칼빈의 생각들 속에서 칭의의 공로적 원인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의 공로는 "우리 바깥"에 위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칼빈은 이렇게 항변한다.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 부분들이 우리 밖에[extra nos]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행위들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는가?"[79] 칼빈은 칭의의 공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에 두어야 한다고 하며 칭의의 4중 원인에 대해 기록한 『기독교 강요』 3.14.17을 마무리한다.[80]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고 칼빈은 확고하게 언급한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칼빈이 말하고 있는 칭의의 목적 원인(causa finalis)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칼빈은 여러 곳에 걸쳐 칭의의 목적 원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영광"[81]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82] 혹은

---

76 Calvin, *Inst.*, 3.11.7 (*CO*, 2:538).
77 Calvin, *Inst.*, 3.11.7 (*CO*, 2:538).
78 Calvin, *Inst.*, 3.14.21 (*CO*, 2:578): "… instrumentum, in Spiritus illuminatione, hoc est fide …"
79 Calvin, *Inst.*, 3.14.17 (*CO*, 2:576): "Quum videamus 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 quid est quod iam operibus vel confidamus vel gloriemur?"
80 Calvin, *Epist. Pauli ad Ephesios*, I.5 (*CO*, 51:148); idem, *Inst.*, 3.14.17 (*CO*, 2:576); idem, Calvin, *Epist. Pauli ad Romanos*, III.24 (*CO*, 49:61) & VII.4 (*CO*, 49:121).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83]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였다. 칼빈은 이를 로마서 3장 26절 즉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에 비추어 설명하면서 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인 신자들의 의로움을 만방에 선포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칭의의 목적 원인을 구성하는 요체라고 칼빈은 지적한다.[84]

2. 분석 및 평가

지금까지 칼빈의 칭의론을 6중 원인에 의거해 살펴보았다.[85] 지금부터 칼빈의 칭의론적 원인에 대한 두 가지 논점을 소개하면서 칼빈의 6중 원인론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겠다. 두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칼빈은 믿음을 칭의의 도구적 원인이라고도 불렀고 동시에 형상적 원인이라고 불렀다.[86] 그 이유는 무엇일까? 칼빈은 형이상학적 원인론의 카테고리를 혼동했던 것일까? (2)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의 각 원인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칼빈이 믿음을 칭의의 도구적 원인, 형상적 원인으로 동시에 본 것에 대해 폴 헬름(Paul Helm)같은 경우엔 칼빈의 "작은 실수"(a slip)라고 보았다.[87] 헬름은 부연하길 칼빈의 신학 사상 안에서 칭의의 형상적 원인은

---

81 Calvin, *Inst.*, 3.14.21 (*CO*, 2:578).
82 Calvin, *Inst.*, 3.14.17 (*CO*, 2:576).
83 Calvin, *Inst.*, 3.14.17 (*CO*, 2:576).
84 Calvin, *Inst.*, 3.14.17 (*CO*, 2:576).
85 칼빈의 칭의론을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4중 원인 하에 고찰한 자료들은 다음을 참고하라. Richard A. Muller, "The 'Golden Chain' and the Causality of Salvation," in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of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172-74; Charles Raith II, *Aquinas & Calvin on Romans: God's Justification and Our Particip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2-43; Randall C. Zachman,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The Shape of His Writings and Though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150-51.
86 Cf. Calvin, *Inst.*, 3.14.17 (*CO*, 2:575).
87 Paul Helm, *John Calvin's Id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01:

분명히 "구원의 신적 계획"(the divine plan of redemption)[88]이기 때문에 믿음을 형상적 원인으로 언급한 것은 칼빈의 작은 실수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존 페스코(John V. Fesko)도 동의하는 바다. 페스코는 칼빈이 최소한 이 지점에서는 도구적 원인과 형상적 원인의 의미를 "혼동"("Calvin confuses…")했다고 본다.[89] 하지만 리차드 멀러(Richard A. Muller) 같은 경우는 이들과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칼빈의 주석 특히 에베소서 1장 8절, 로마서 3장 2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살피면서 멀러는 주장하길 칼빈에게 있어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고 형상적 원인은 "선포된 말씀"인데 이 둘은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둘을 "결합"("he [Calvin] either conjoined faith and the preached word in the formal causality")시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다.[90] 그러나 멀러는 이어서 주장하길 칼빈의 주석에서는 믿음이 말씀을 수납하는 도구로서 명확히 표현되어 있고 동시에 말씀은 구원의 형상적 원인이라고 명확히 표현되어 있으므로 칼빈은 이 둘을 결합시켜 이해함과 동시에 "보다 더 큰 엄밀성"(a greater precision)의 시각 하에서는 둘을 구분했다고 본다.[91] 칼빈이 믿음을 도구적 원인인 동시에 형상적 원인으로 본 것에 대해 형이상학적 카테고리를 혼동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는 헬름이나 페스코의 해석보다는 멀러의 해석이 좀 더 칼빈의 목소리를 잘 대변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멀러의 해석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자체가 말하는 바와 더불어 여러 주석들이 말하는 바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그 다음 논점은 과연 칼빈이 말하는 칭의의 다양한 원인들 간의

"The use of 'formal cause' here may simply be a slip …"

88 Helm, *John Calvin's Idea*, 401.

89 John V. Fesko, *Beyond Calvi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 (1517-170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36n9.

90 Muller, "The 'Golden Chain' and the Causality of Salvation," 173.

91 Muller, "The 'Golden Chain' and the Causality of Salvation," 173.

내적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세부 논점으로 다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원인들 안에서의 내적 인과 관계에 대한 논의와 (2) 원인들 안에서의 1차, 2차 원인에 대한 논의이다. 첫 번째 논의의 핵심은 만약 칭의의 6중 원인 중 하나라도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칭의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면 칭의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 헬름은 의미 있는 도식을 사용한다. X가 Y의 원인인데 만약 X라는 원인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Y도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만약 다양한 원인들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칭의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92] 즉 질료적 원인 하나라도 혹은 도구적 원인 하나라도 빠지게 될 경우에도 칭의 자체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헬름은 칼빈이 전개한 칭의의 원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응하는 조건"(a corresponding condition)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93] 이는 옳은 지적이다.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유효적 원인), 그리스도의 의(질료적 원인), 선포된 말씀(형상적 원인), 믿음(도구적 원인), 그리스도의 사역(공로적 원인), 하나님의 영광(목적 원인)이 유기적, 포괄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부 논점은 이러한 칭의의 원인들 사이에서 1차, 2차 원인을 구분해 생각할 수 있는가이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확고하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칭의의 최고 원인 혹은 기원(summa causa vel origo)이며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둘째 원인(causa secunda)과 좀 더 근인(近因, causa propior)이다.[94] 칼빈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모든 2차 원인은 1차 원인으로부터 흘러나오고 1차 원인에게로 종속되어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95] 그러므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

92 Helm, *John Calvin's Idea*, 403.
93 Helm, *John Calvin's Idea*, 403.
94 Calvin, *Inst.*, 2.17.2 (*CO*, 2:387): "Videmus ut priorem locum teneat Dei dilectio, tanquam summa causa vel origo: sequatur fides in Christum, tanquam causa secunda et propior."
95 Calvin, *Inst.*, 3.14.17 (*CO*, 2:576).

산물인 것이다.

Ⅳ. 꼼리와 칼빈의 연속성, 비연속성, 그리고 신학적 함의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꼼리와 칼빈의 뚜렷한 연속성은 둘 다 칭의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구원론적 주권을 굳건히 확보했다는 점이다. 특히 칭의의 유효적 원인과 목적 원인을 확고하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의지, 기쁜 뜻, 공의에 둠으로 칭의의 여부를 인간적 결정이나 행위에 두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꼼리와 칼빈 둘 다 칭의의 질료적 원인을 그리스도의 의에 둠으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이유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에 두었다. 이는 칭의론이 철저히 기독론 위에 세워짐으로 칭의의 공로가 철저히 그리스도에게로만 돌려지게 하는 신학적 의의가 있다.[96] 즉 꼼리와 칼빈은 칭의의 공로적 원인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만 동일하게 돌렸다. 이는 최소한 반(半)펠라기우스주의적 칭의론 형태를 띠고 있는 각종 현대적 칭의론과는 그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이다.[97]

그렇다면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꼼리와 칼빈의 시각 사이에서 드러나는 비연속성은 무엇인가? 둘 사이의 뚜렷한 비연속성은 칭의의 형상적 원인과 도구적 원인에 대한 이해였다. 꼼리에게 있어 칭의의 형상적 원인은 그리스도 의의 즉각적/직접적 전가였지만 칼빈에게 있어서는 선포된 말씀 혹은 그 말씀과 더불어 존재 가능한 믿음이었다. 또한 칭의의 도구적 원인은

96 칭의론 뿐만 아니라 신학 전 영역에 걸쳐 기독론의 토대 위에서 사고하려고 했던 성향은 개혁신학의 특징 중 하나였다. 신론도 마찬가지였다. 신론을 기독론의 토대 위에서 사고했던 스티븐 챠녹(Stephen Charnock, 1628-1680) 같은 인물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의 Jae-Eun Park, "Stephen Charnock's Christological Knowledge of God in *A Discourse of the Knowledge of God in Christ," The Confessional Presbyterian*, 10 (2014): 73-81을 참고하라.

97 이에 대해서는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51-104 ("현대의 균형 잃은 칭의론" 부분)을 참고하라.

꼼리나 칼빈이나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꼼리에게 있어 믿음은 믿음의 행위(actus)라기보다는 믿음의 성향(habitus)에 더 가까웠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의 도구적 원인인 믿음은 "수단적"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그릇"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믿음을 비(非)공로주의적 토대 위에서 최대한 수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성을 가진 반면[98] 꼼리는 믿음의 행위보다는 성향에 방점을 찍어 믿는 행위가 칭의의 방정식에서 공로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는 방향성을 더 짙게 담지하고 있다. 꼼리의 이러한 방향성은 그의 형상적 원인에 대한 설명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꼼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도 믿음의 행위 없이 진행시키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꼼리와 칼빈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고찰한 결과 보다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칭의의 원인을 고려한 쪽은 꼼리 보다는 칼빈 쪽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칭의를 "하나님의 주권 vs. 인간의 역할"의 구도로 볼 경우에 믿음의 행위를 최소화한 꼼리는 그 균형의 추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쏠려 있다. 반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서 칭의의 도구적 원인인 믿음의 본질적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꼼리는 칭의의 6중 원인 중 하나를 약화 혹은 축소시켜 다른 원인을 더 강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했고 칼빈은 6중 원인 전부의 본질적 기능을 동일하게 강조함과 동시에 1차, 2차 원인의 구도 안에서 칭의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 두 전략 중에 보다 더 성경적이고 건전하게 균형 잡힌 쪽은 칼빈의 전략이다.

칭의 사건은 6중 원인이 유기적,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또한 각 원인들이 본연의 기능을 가감 없이 훌륭히 수행해야만 한다.

---

98 칼빈이 이해한 "믿음"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Barbara Pitkin, *What Pure Eyes Could See: Calvin's Doctrine of Faith in Its Exegetical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Victor Shepherd, *The Nature and Function of Faith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1983).

만약 칭의의 도구적 원인이 유효적 원인보다 앞서거나 더 강조된다면 그 결과는 최소한 반(半)펠라기우스주의적 칭의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반대로 칭의의 도구적 원인이 무시되거나 간과된다면 그 결과는 최소한 하이퍼 칼빈주의적(Hyper-Calvinistic) 칭의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혹은 만약 칭의의 질료적, 형상적 원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외에 그 어떤 것이 된다면 그 결과는 인간이 칭의의 방정식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공로적 역할을 감당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칭의론의 물꼬를 틀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의 6중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원인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칭의론이 득세한 작금의 시대 속에서 더 적실하게 요청된다.

V. 나가는 말

개혁신학자들은 형이상학적, 철학적 틀을 사용하여 신학을 전개함에 있어 닫힌 자세보다는 열린 자세를 취하였다.[99] 여기서 열린 자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이상학적 틀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라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칼빈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절충적으로(eclectically) 그 틀을 선용(善用)했다. 즉 철학이 신학을 해석학적으로 섬긴 것이다(to serve).[100]

특히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는 칭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6중 인과 관계의 도식은 유용했다. 칭의의 근원적 유효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렸고, 칭의의 모든 공로, 질료, 형상적 원인을 그리스도의 의와 사역에 돌렸을 뿐 아니라, 그 칭의를 받아 누리는 그릇으로 믿음을 도구적 원인으로 삼아, 칭의의 전적인 목적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린 것이

99 박재은, “16-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형이상학 이해,” 135-65를 참고하라.
100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1:360-405.

다. 물론 꼼리와 칼빈의 시각 차이에서 드러났다시피 이 각 원인들의 무게 중심과 경중을 따져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몫은 신학자의 몫이었다. 이 몫은 각 개개인이 살았던 시대의 신학적 배경과 연관되어 혹은 자신의 신학적 사상과 연관되어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꼼리 같은 경우엔 다른 원인들에 비해 칭의의 도구적 원인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고 칼빈 같은 경우엔 최대한 각 원인들의 본연의 몫을 유지시키려 노력했다. 본고에서 지금까지 살폈듯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는 꼼리보다는 칼빈 쪽에 더 가깝다.

지극히 혼란스러운 작금의 칭의론 지형도에서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적용은 여전히 적실하며 필요하다. 칭의의 원인을 크게는 1차 원인(하나님의 사역), 2차 원인(인간의 사역)으로 나누어 양 날개의 축을 동시에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101] 세부적으로는 칭의의 6중 원인이 온전히 그 본연의 기능을 각각 담당함으로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칭의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칭의의 6중 이해에 대한 꼼리와 칼빈의 시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울림을 준다.

---

101 우리 구원의 1차 원인과 2차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특히 예정론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의 Jae-Eun Park, "John Plaifere (d.1632) on Conditional Predestination: A Well-mixed Version of *scientia media* and Resistible Grace," *Reformation & Renaissance Review*, 18.2 (2016): 155-73을 참고하라.

[Abstract]

John Calvin and Alexander Comrie's Continuity, Discontinuity, and Theological Implication on the Sixfold Causality of Justification

Jae Eun Park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The study examines John Calvin(1509-1564) and Alexander Comrie's(1706-1774)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light of the sixfold causality of justification(i.e., efficient, material, formal, instrumental, meritorious, final cause). In order to understand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condignly, the sixfold causality of justification is useful and valuable, since justification should be dealt with various dimensions such as God's salvific plan and its execution, Christ's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believer's faith, God's glory, etc. To defend the traditional and biblical doctrine of justification, Reformed theologians made good use of several causalities of justification against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asserted by Roman Catholic Church, Arminianism, antinomianism, neonomianism, hyper-Calvinism, etc. Specificall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Calvin's and Comrie's view of the sixfold causality of justification. Based on the discussion, the study will find the theological implication and sound theological viewpoint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Key words: John Calvin, Alexander Comrie,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the Sixfold Causality, Causality

[참고문헌]

1. 1차 자료

Calvini, Ioanni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libros quatuor nunc primum digesta, certisque distincta capitibus, ad aptissimam methodum: aucta etiam tam magna accessione ut propemodum opus novum haberi possit." 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rdus Reuss. 59 vols. 2:1-1118. Brunswick: Schwetschke, 1863-1900.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ed. John T. McNeill. Louisville: The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Peabody:Hendrickson Publishers, 2008.

_____. *Epist. Pauli ad Romanos.* In *CO*, 49.

_____. *Epist. Pauli ad Ephesios.* In *CO*, 51.

Comrie, Alexander. *Stellige en praktikale verklaaringe van den Heidelbergschen Catechismus, volgens de leere en gronden der Reformatie.* Amsterdam: Nicolaas Byl, 1753.

_____. *Brief over de rechtvaerdigmakinge des zondaars: door de onmiddelyke toereekening der borggerechtigheit van Christus.* 2nd Edition. J. Bloemsma, 1832.

Luther, Martin.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Hermann Böhlaus Nachfolger, 1898.

Trelcatius, Lucas. *Scholastica, et methodica, locorum communium s. theologiae institutio didacticè & elencticè in epitome explicata.* London, 1604.

2차 자료

박재은. “16-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형이상학 이해.”「교회와 문화」 37 (2016):135-165.

_____. “위트레흐트 대학의 설립, 운영, 그리고 교육.”『종교개혁과 교육』.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11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7.

_____.『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역할, 그 사이에서 바라본 칭의』.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_____.『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역할, 그 사이에서 바라본 성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_____. “균형 잡힌 칭의 교리 교육을 위한 제언: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 개념의 중요 성과 필요성.” 2016년 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발제문.

Aristotle, *Physics: Books I and II.* trans. William Charlton. Oxford, Clarendon Press, 2006.

Beeke, Joel R. *The Quest for Full Assurance: The Legacy of Calvin and His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9.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6.

Boersma, Hans. *A Hot Pepper Corn: Richard Baxter'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Its Seventeenth-Century Context of Controversy.* Zoetermeer: Uitgeverij Boekencentrum, 1993.

Exalto, K. “Genadeleer en Heilsweg.” In *Theologische aspecten van de Nadere Reformatie.* ed. T. Brienen, K. Exalto, and C. Graafland. Zoetermeer: Boekencentrum, 1993.

Fesko, J. V. *Beyond Calvi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 (1517-170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Foster, Herbert Darling. “Liberal Calvinism: the Remonstrants at the Synod of Dort in 1618.” *Harvard Theological Review*, 16 no.

1 (January 1923): 1-37.

Freedman, Joseph S. "Aristotle and the Content of Philosophy Instruction at Central European Schools and Universities during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37/2 (1993): 213-253.

Goudriaan, Aza & Fred van Lieburg, eds., *Revisiting the Synod of Dordt (1618-1619).* Leiden:Brill, 2011.

Graafland, C. "Alexander Comrie (1706-1774)." In *De Nadere Reformatie: beschrijving van haar voornaamste vertegenwoordigers.* ed. T. Brienen et al. 's-Gravenhage: Boekencentrum, 1986).

Helm, Paul. *John Calvin's Id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Honig, A. G. *Alexander Comrie.* Utrecht: 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 1892.

Lohr, Charles H. "Metaphysic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Renaissance Philosophy.* ed. Charles B. Schmitt and Quentin Skinner. 537-63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Muller, Richard A. "The 'Golden Chain' and the Causality of Salvation." In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of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_____.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The Rise and Development of Reformed Orthodoxy, ca. 1520 to ca. 1725.* 4 vols. Grand Rapids: Baker, 2003.

_____. "Reformation, Orthodoxy, 'Christian Aristotelianism,' and the Eclecticism of Early Modern Philosophy."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81.3 (2001): 306-325.

_____. "Scholasticism, Reformation, Orthodoxy, and the Persistence of Christian Aristotelianism." *Trinity Journal* 19:1 (Spring 1998): 81-96.

_____. *The Study of Theology: From Biblical Interpretation to Contemporary Formu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_____.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Packer, J. I. *The Redemption & Restoration of Man in the Thought of Richard Baxter: A Study in Puritan Theology.*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3.

_____.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Crossway Books, 1990.

Park, Jae-Eun. *Driven By God: Active Justification and Definitive Sanctification in the Soteriology of Bavinck, Comrie, Witsius, and Kuyp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Forthcoming.

_____. "John Plaifere (d.1632) on Conditional Predestination: A Well-mixed Version of *scientia media* and Resistible Grace." *Reformation & Renaissance Review*, 18.2 (2016): 155-173.

_____. "Stephen Charnock's Christological Knowledge of God in *A Discourse of the Knowledge of God in Christ." The Confessional Presbyterian*, 10 (2014): 73-81.

_____. "Theophilus Gale's Reformed Platonism: Focusing on His Discourse of 'Creation' and 'Providence' in *The Court of the Gentiles.*"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4(2013): 121-142.

Pitkin, Barbara. *What Pure Eyes Could See: Calvin's Doctrine of Faith in Its Exegetical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Raith II, Charles. *Aquinas & Calvin on Romans: God's Justification*

and Our Particip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Schaff, Philip. e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3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9.

Shepherd, Victor. *The Nature and Function of Faith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Vancouver:Regent College Publishing, 1983.

Van den Brink, G. A. "The Act or Habit of Faith? Alexander Comrie's Interpretation of Heidelberg Catechism Question 20." In *Reformed Orthodoxy in Scotland: Essays on Scottish Theology 1560-1775.* 253-270. ed. Aaron C. Denlinger. London: T & T Clark, 2015.

_____. "'Elke daad is een werk', Alexander Comrie (1706-1774) over de verschillen tussen de remonstrantse en de gereformeerde rechtvaardigingsleer." *Theologia Reformata* 55, no. 2(2012): 146-164.

_____. "Tegenwicht of tegenstelling? Het belang van de eigenschappen voor de Comrie-Interpretatie." *Documentatieblad Nadere Reformatie* 36, no. 2 (2012): 180-186.

_____. "Comrie en het Antinomianisme," *Documentatieblad Nadere Reformatie* 30, no. 2 (2006):133-139.

Van Leeuwen, Theodoor Marius, Keith D. Stanglin, & Marijke Tolsma, eds., *Arminius, Arminianism, and Europe: Jacobus Arminius (1559/60-1609).* Leiden: Brill, 2009.

Wisse, Maarten. "*Habitus Fidei:* An Essay on the History of a Concept."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6, no. 2 (2003): 172-189.

Zachman, Randall C.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The Shape of His Writings and Though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